



2026. 9. 22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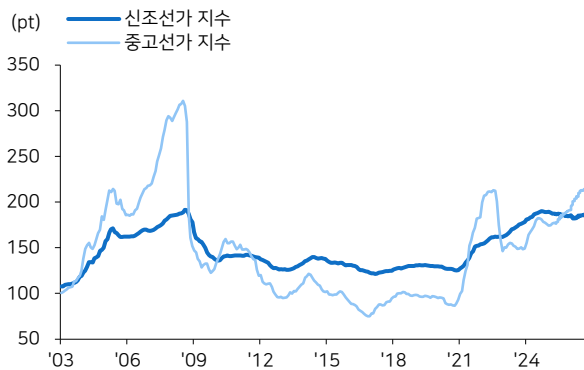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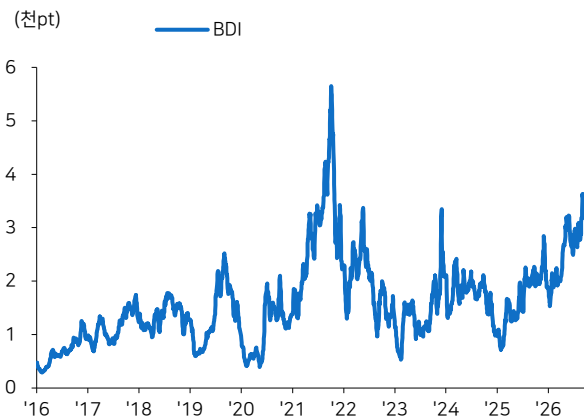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8.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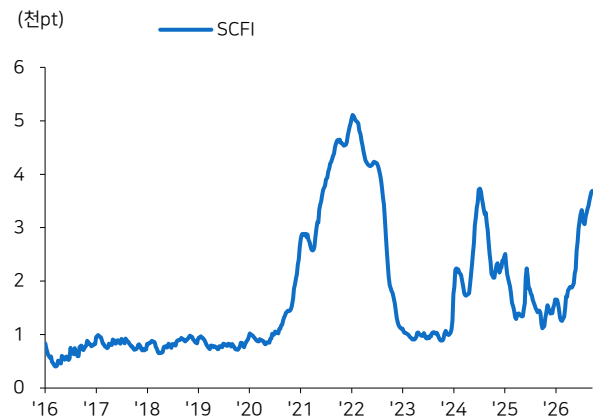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70.0p (+3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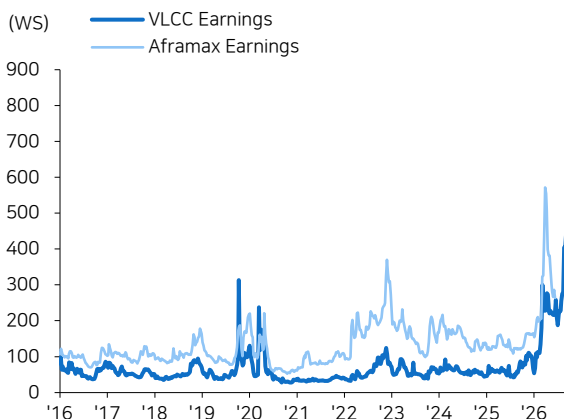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87.8 (+25.7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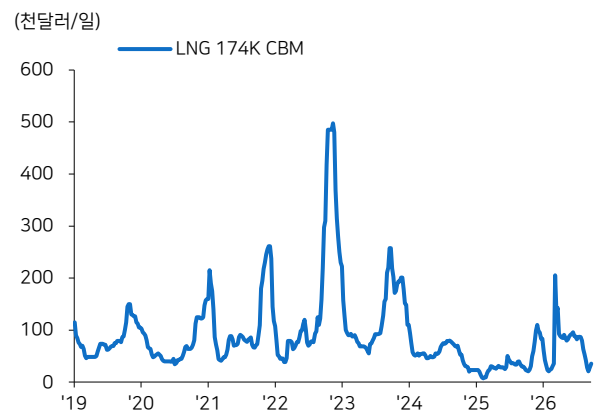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5.0WS (+147.6 WoW)



LNG Spot 운임

35.8천달러 (+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현대중공업, 271,000 m³급 초대형 LNG 운반선 DNV 기본승인 획득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N1BeU8>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271,000m³급 차세대 초대형 LNG 운반선(Q-Max급) 설계가 DNV로부터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보도됨. 이번 설계는 기존 174,000m³급 대비 화물 적재량을 55% 이상 확대했으며, 슬로싱과 극저온 화물창 구조 등 초대형 LNG선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증산 등 글로벌 LNG 대형화 수요에 대응해 초대형 LNG 운반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대규모 선단 발주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으로 알려짐.

No alternative to Strait of Hormuz for LNG, QatarEnergy CEO warns (Upstream)

<https://zrr.kr/UarXoL>

QatarEnergy가 호르무즈 해협 우회를 위한 파이프라인은 경제성과 기술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해짐. 카타르는 북부 가스전 확장을 통해 LNG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1억4,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LNG는 파이프라인이 아닌 액화 설비를 통해 수출하는 구조여서 우회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경우 기존 LNG 인프라가 중복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전해짐. 한편 이란의 공격으로 라스라판 LNG 트레인 2기와 GTL 설비 1기가 피해를 입었으며, GTL은 2027년 1분기, LNG 트레인은 약 3년의 복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LNG 수출은 수주 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알려짐.

'한화 인수 추진' 오스탈 USA 몸값 오르나...美 해군 군함 정비사업 신규 수주 (더구루)

<https://zrr.kr/IXbyAf>

한화가 인수를 추진 중인 오스탈 USA가 미 해군으로부터 1,080만달러 규모의 USS 오클랜드(LCS-24) 긴급 정비(MRO) 계약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주 서비스 디젤 발전기 교체를 포함한 고난도 정비로, 최근 인증을 획득한 9,000톤급 부유식 드라이도크를 처음 활용해 정비 효율과 함정 복귀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전해짐. 오스탈 USA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서부 해안 지역의 군함 MRO 역량을 입증했으며, 향후 구축함과 순양함 등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페루 집결한 K-방산...HD현대중·KAI·현대로템 "중남미 공략, 국가전략 필요"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V1J3hq>

페루를 거점으로 HD현대중공업, KAI, 현대로템이 함정·항공기·지상장비 등 중남미 방산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금융·국방외교·기술협력을 포함한 국가 단위 수출 패키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은 K2 전차·K808 장갑차, KAI는 FA-50·KT-1P, HD현대중공업은 페루 SIMA 조선소와 함정 공동건조를 추진하며 현지 생산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병행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짐. 방위사업청과 업계는 중남미의 제한적인 국방예산과 산업 기반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지원, ODA 기반 기술 인력 양성, 퇴역장비 공여 등 정부 주도의 협력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고 알려짐.

'슈퍼사이클' 조선업계, 노사 갈등에 몸살...파업 장기화 우려 (연합뉴스)

<https://zrr.kr/FHJDfq>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과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속에서도 임금·성과급 교섭 장기화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으며, 추석 이후에도 파업과 교섭이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골리앗 크레인 가동 중단, HD현대중공업은 부분파업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파업 장기화 시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추가 수주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해짐. 업계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납기 준수가 한미 조선·방산 협력 및 대외 신뢰도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알려짐.

제이오션중공업, 탱커 6 척 수주...군산조선소 정상화 '청신호' (연합뉴스)

<https://zrr.kr/3hD1QS>

HD현대중공업의 전북 군산조선소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제이오션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사와 15.7만DWT 원유운반선 2척과 11.4만DWT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하며, 군산조선소 예정 물량을 총 10척으로 확대했다고 보도됨. 회사는 군산조선소의 초대형 선박 건조 능력과 수주잔량이 없는 생산 여력에 따른 빠른 납기를 경쟁력으로 제시해 추가 LOI를 확보했다고 전해짐. 이번 11.4만DWT 선형은 IMO 환경규제를 충족하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모두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돼 운항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인 차세대 탱커 모델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